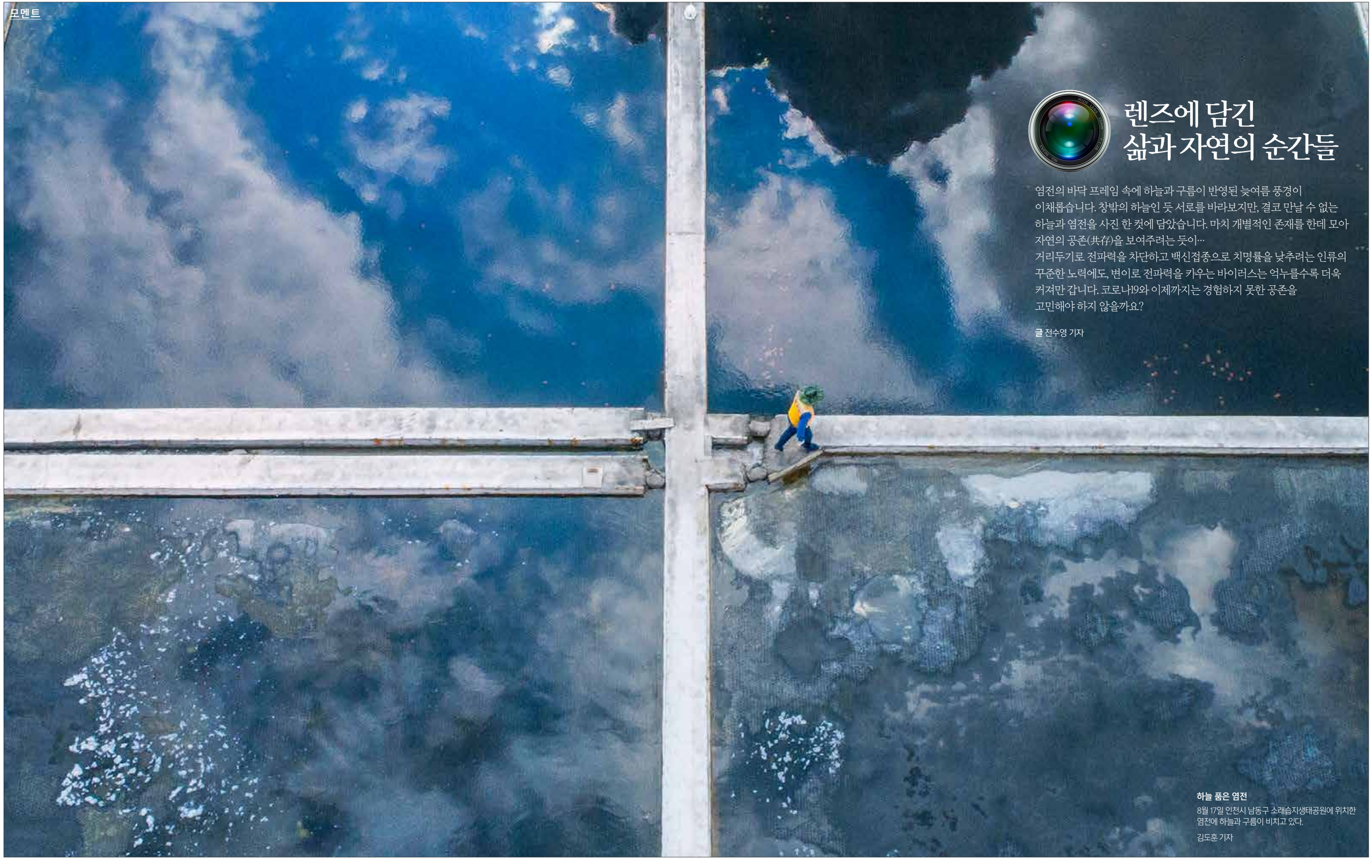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염전의 바닥 프레임 속에 하늘과 구름이 반영된 늦여름 풍경이 이채롭습니다. 창밖의 하늘인 듯 서로를 바라보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늘과 염전을 사진 한 컷에 담았습니다. 마치 개별적인 존재를 한데 모아 자연의 공존(共存)을 보여주려는 듯이…
거리두기로 전파력을 차단하고 백신접종으로 치명률을 낮추려는 인류의 꾸준한 노력에도, 변이로 전파력을 키우는 바이러스는 억누를수록 더욱 커져만 갑니다. 코로나19와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공존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 전수영 기자

하늘 품은 염전

8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위치한 염전에 하늘과 구름이 비치고 있다.

김도훈 기자

가을배추 농사
8월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서 농민들이 가을배추를 심고 있다.
양지웅 기자

광복절에 열린 독도 하늘길
제76주년 광복절인 8월 15일 경북도 주최 울릉도·독도 무착륙 민간여객기 비행에 참여한 시민이 독도 상공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독도를 촬영하고 있다. 독도 상공은 민간여객기의 비행이 금지됐지만, 이날은 국방부와 협의 후 하늘길이 민간에 처음 열렸다.
김현태 기자

독립기념관 상공 날아가는 '블랙이글스'
광복절인 8월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상공에서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멋진 곡예비행을 연출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더위에는 얼음이 최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8월 6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오타리아(남아메리카 바다사자)가 얼린 고등어를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제주 바닷속 원담

8월 4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 원담 일대의 바다가 비취색으로 빛나고 있다. 원담(갯담)이란 움푹 팬 해안가에 돌로 낮은 담을 둥그렇게 쌓아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원시적인 어로 방법이다. 밀물 때에 원담 안으로 몰려든 물고기들이 썰물 때 물이 빠지면서 원담 안에 가둬지게 된다.

박지호 기자

코스모스와 나비

8월 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나비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다.

홍기원 기자

날아라 여서정

8월 1일 일본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도마 결승전. 여서정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여서정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손형주 기자

신유빈의 올림픽

8월 3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전 8강 한국-독일 네 번째 단식. 신유빈이 독일 한잉과의 경기에서 서브를 넣고 있다.

한상균 기자

금·은·동메달의 화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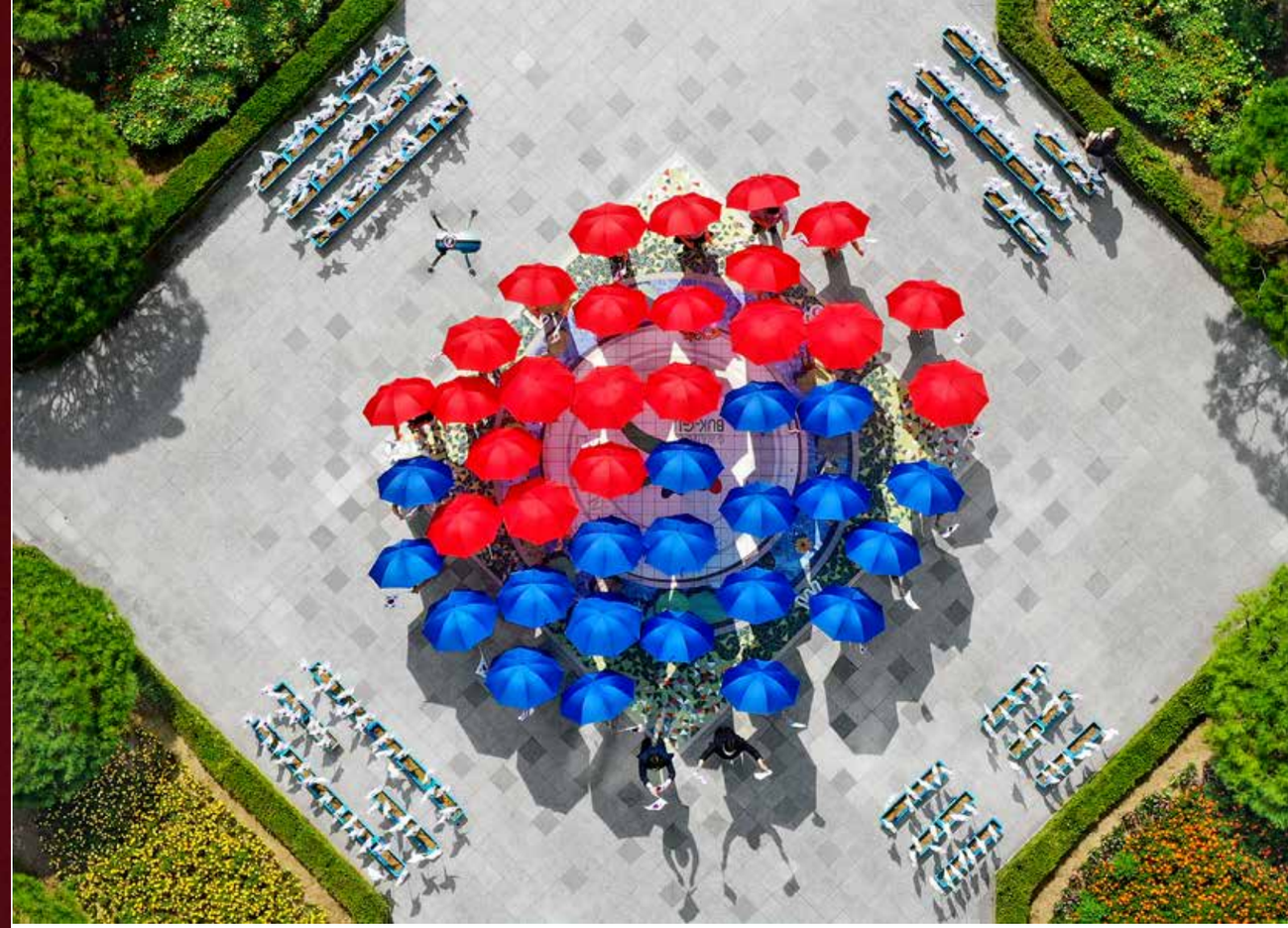
8월 2일 일본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프라자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김소영-공희용이 중국, 인도네시아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윤동진 기자

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8월 5일 일본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프라자에서 열린 근대5종 펜싱 랭킹 라운드 경기. 한국 김세희가 러시아 울리야나 상대로 점수를 획득한 뒤 환호하고 있다. 근대 5종은 사격, 펜싱(에페), 수영, 승마, 육상 경기로 종합점수를 매겨 순위를 결정하는 종목이다.

손형주 기자



광복절, 태극기 퍼포먼스

광복절을 나흘 앞둔 8월 11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구청 공직자들이 태극기 문양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박철홍 기자

도쿄 입성 준비

2020 도쿄 패럴림픽을 일주일 앞둔 8월 17일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휠체어 탁구 김현욱이 라켓을 손에 묶고 있다.

김인철 기자